

막판까지 정국 흔들는 '대장동 의혹'...여야 비방전 격화

민주 '尹게이트' 역습으로 반전 시도...尹 부친 집 매입·저축은 총공세 국힘 '뭉툭은李' 프레임 각인 총력...수사 중 사망 고인 유족 회견도

'대장동 의혹'이 대선 정국에서 불씨를 키워가면서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살얼음, 초접전 양상이 선거운동 중·후반부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 이면서 중도·부동층 표심 확보에 사생결단 승부를 걸고 있는 양측이 '대장동 의혹'에 막판 화력을 총 집중하는 양상이다.

이에 수사 과정에서 조각조각 흘러나오는 녹취록 중 특정 부분만 인용해 애전인수식 해석을 한다거나 수사 과정에서 숨진 고인의 유족 측 입장을 들어나오는 등 상대 비방전도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처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다소 수세적인 입장을 유지했다가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중반전을 지나면서 적극적인 공세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한때 별어졌던 윤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일부 좁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박빙 열세' 국면이라는 상황 인식 속에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내달 3일 전까지 최대한 판세를 반전할 상승 동력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그간 이 후보에게 씌워졌던 '대장동 의혹'의 프레임을 벗겨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등 윤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에 연루했다는 최근 의혹을 근거로 대대적인 역습을 가하고 있다.

윤 후보 부친의 연회동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가 매입한 사실과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등을 모조리 끄집내며 '윤석열 게이트'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 후보는 23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뭉툭이라고 100% 확신한다"면서 "범죄집단이 증거들을 마련하도록 수사하고도 바꾼 게 윤 후보 아니냐"고 직격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화천대유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질수록 이재명 후보의 결백이 확실해지고 있다"면서 "윤석열 후보가 끝내 사과하지 않는다면 다른 의심을 키울 수밖에 없다. 김만배-윤석열-범죄집단으로 이어지는 '윤석열 게이트'라는 본질을 숨기기 위해 계속 역지를 쓴다는 의심"이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도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설계·결재권자로 '뭉툭'이라는 점을 거듭 부

각하며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공세를 이어갔다.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YTN 라디오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녹취록 속 '이재명 게이트' 언급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그 뜻을 '무죄 받은 재판을 뜻하는 거다', 강훈식 의원은 '(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를 막고 있다'고 했는데 둘다 기준에 위키피디아나 국어사전이나 상식사전에 나오는 것보다 동떨어진 독창적 해석"이라고 비꼬았다.

또 이 후보가 주장한 녹취록상의 '윤석열은 죽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이야기다. 양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던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 부분에 대해 다시 영장이 들어오면 골치아프다는 맥락의 이야기"라면서 "이걸 대장동 뭉툭이라 갖다 붙이는 건 금지조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 유족들과 함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가 김씨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반박하며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공세의 고삐를 강하게 죄는 것은 대장동 의혹이 대선판의 전면에 부각될수록 윤 후보에게 나쁠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유능한 행정' 이미지를 내세우는 이 후보가 실상은 부패했다는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각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장동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이라는 의혹을 받은 조재연 대법관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대장동 누구와도 일면식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안양중앙시장 찾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중앙시장에서 상인 및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서 유세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울산시 남구 롯데호텔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후보-李 대표 '따로 따로' 국힘 야권 단일화 엿박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재협상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는 연일 안 후보를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면서 엿박자를 내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도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 불리한 속내를 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3일 오전 MBC 라디오 출연해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속 좁은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우리 후보(윤석열)는 통 큰 사람이다. 통 큰 합의는 통 큰 사람 둘이 만나서 해야 하는 거지, 통 큰 사람과 속 좁은 사람이 만나면 그건 복잡 터진다"라고 말했다. 단일화 결렬의 책임을 안 후보에게 돌리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 후보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측 관계자에게 '안철수 후보를 접게 만들겠다'는 등 제안을 해온 것도 있다"고 말했다. '삼국지'에서 관우를 배반한 미방·부사인, 장비를 죽인 범강·장달 이야기를 꺼내며 "(안 후보 측에서) 그런 거(배신 행위) 하는 분들 있었다"고도 말했다.

곧바로 이어진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고인 유지' 발언을 놓고 이 대표를 몰아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이준석의 고인 유지 발언에 대한 사과가 있으면 단일화 협상이 가능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 대표의 고인 유지 발언은 정치인으로서 국민 앞에서 할 수 없는 막말이고 혐오 발언"이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만 단일화 관련 최종적인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후보가 지는 것이고, 윤 후보의 묵묵부답과 회피가 가장 큰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부산 유세에서 안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한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 "윤 후보가 회피하는 모습과 함께 시간 끌기용으로 질질 끄는 모습들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 같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중대선거구·결선투표제 논의...安과 '민심 단일화' 포석

제3지대 겨냥 정치제도 개혁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화해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결렬된 후 안 후보가 일부 주장했던 내용이 포함돼 있어 민주당이 안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안 후보가 거듭 주장해 온 다당제와 이재명 후보의 국민 내각을 통한 통합정부 구상은 둘 다 '양당정치 교체'라는 공통분모를 가졌다는 점에서

다.

두 후보 간 단일화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치 교체'를 고리로 사실상 정책 연대를 이루면서 이른바 '민심 단일화' 효과를 거두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대선 결선투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책임총리제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

대표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논의했다.

박원주 정책위의장이 해당 의제들을 요약해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최고위는 개혁안 추진 시기와 방법 등을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에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개혁안의 경우는 당내에서도 견해차가 크게 엇갈리는 데다 대선 시점 등을 고려하면 당장 현실화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애초 목적 자체가 공론화를 통한 대선 여론 환기에 있다는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가령,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전일 최고위 회의에서도 강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역시 당장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된 상황이라 도입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안 논의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등의 구체화한 것은 전혀 없다"며 "특히 선거구제는 예민한 사안이라 이 후보로서도 이를 당장 들고 가서 상대 당 후보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